



강지민이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파72·6천673야드)에서 열린 LPGA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 3라운드 5번 홀에서 세컨드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지민 공동 4위 '막판 추격전'

나비스코챔피언십 3R 4년만에 우승 도전

신지에 20위... 위성미는 17오버파 최하위

강지민(29)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강지민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파72·6천673야드)에서 열린 대회 3일째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를 묶어 1타를 줄여 4언더파 212타로 린지 라이트(호주)와 함께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2005년 5월 코닝클래스에서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던 강지민은 올해 4개 대회에 나와 공동 22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으나 이번 대회에서 4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2라운드까지 공동 1위였던 재미교포 김초롱(25·미국명 크리스티나 김)은 버디 없이 보기만 3개를 기록해 3언더파 213타로 6위로 내려섰다.

신지에(21·미에에셋)는 버디 5개와 보기 4개로 역시 1타를 줄여 3오버파 219타로 공동 20위로 순위를 18계단 끌어올렸지만 우승권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골프 여제' 로라나 오초아(멕시코)는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2오버파 218타, 공동 15위에 올랐고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이를 연속 9오버파의 부진 속에 17오버파 233타로 컷을 통과한 70명 가운데 최하위인 70위에 처했다. /연합뉴스

한국 봅슬레이, 日 꺾었다

아메리카컵 7차대회 4인승 뺏

봅슬레이대표팀이 2008-2009 국제봅슬레이연맹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고 연이은 8차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광배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끝난 아메리카컵 8차 대회 4인승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55초02로 4위를 차지해 일본(1분54초97)에 0.05초 차로 아깝게 동메달을 내렸다. 하지만 대표팀은 전날 같은 곳에서 치러진 7차 대회에서는 1, 2차 시기 합계 1분56초26을 기록, 일본(1분56초61)을 0.35초 차로 제치고 3위에 올라 이번 시즌 처음 시상대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대표팀은 지난해 1월 아메리카컵 2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 사상 첫 국제대

회 메달의 기쁨을 맛보는 등 아메리카컵에서 두 시즌 연속 입상하는 선전을 펼쳤다. 7차 대회 동메달의 상수세를 안고 이날 8차 대회에 나선 대표팀은 1차 시기에서 57초24로 선두 미국(56초59)에 단 0.65초 차 뒤지는 2위를 기록하면서 은메달 확보의 희망을 키웠지만 2차 시기에서 4위(57초78)로 내려앉으면서 1, 2차 시기를 합쳐 종합 4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3팀), 일본, 슬로바키아, 멕시코, 브라질 등 총 8개 팀이 참가했다. 강광배 대표팀 감독은 연합뉴스와 국제전화에서 "8차 대회 1차 시기에서 기록이 아주 좋아서 2차 시기에서 조금 욕심을 부렸는데 아쉬웠다"라며 "하지만 7차 대회를 통해 국제 대회에서 처음 일본을 앞선 것에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철호 단식 우승

오사카 챌린지배드민턴

이철호(수원시청)가 2009오사카챌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철호는 5일 일본 오사카에서 벌어진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손완호(인천대)에 2-1(19-21 21-11 21-11)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자단식 결승에 나선 김민희(한국체대)는 일본의 고토 아이에게 0-2(14-21 14-21)로 저 준우승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설기현 1경기 2도움

'스나이퍼' 설기현(30·알 힐랄)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무대로 진출하고 나서 아직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지만 '특급 로우미'로 맹활약하고 있다. 설기현은 5일 리야드에서 열린 리 에티파크와 2008-2009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홈경기에서 혼자 도움 2개를 배당하며 2-0 완승에 앞장섰다. 설기현이 한 경기에서 어시스트 2개를 올리는 이번이 처음, 지난 2월16일 알 와타니와 프레스프 16장에서 시즌 2호 도움을 배당했던 설기현은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후 총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하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 상무 '짜릿한 재역전승'

K-리그 4R 부산 3-2 꺾고 '원정 무승 징크스' 탈출

'조작력'을 앞세운 광주 상무가 28경기 원정 무승 징크스를 깼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는 3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K-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3-2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지난 2007년 8월15일 이후 이어져 오던 원정 무승 징크스에서 탈출했다. 정규리그 경기만으로 따지면 원정 40경기(11부29패) 만에 첫 승리다. 선취골은 광주의 몫이었다. 광주는 전반 21분 최재수의 선제골로 1-0으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8분과 11분 부산 정성훈과 김창수에게 연달아 골을 내주면서 1-2로 끌려갔다. 하지만 후반 29분 공격수 김명중이 방화로 때린 중거리 슈팅이 부산의 왼쪽 골문을 파고들면서 승부는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5분 뒤에는 상무의 기나긴 징크스를 날리는 강진규의 통쾌한 슈팅이 터졌다. 후반 34분 박병구의 패스를 받은 강진규(시진)가 오른쪽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키며 3-2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시즌 3승 7부 16패로 정규리그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상무는 이날 승리로 시즌 3승째를 챙기며 '중위권 진입'이라는 시즌 목표를 넘어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J리그 조재진, 시즌 2호골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는 공격수 조재진(28·감바 오사카)이 시즌 2호골을 터트렸다. 조재진은 4일 일본 오사카 엑스포70 스타디움에서 열린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2009 J-리그 4라운드 홈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 25분 왼발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뽑아 균형을 깨트렸다. 올 시즌 2호골. 지난달 7일 제프 유나이티드 지바와 올 시즌 J-리그 개막전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어 3-0 완승에 힘을 보태고 나서 세 경기 만에 다시 골 맛을 봤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최희암 감독

벌금 1천만원 '중징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최희암 감독이 KBL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5일 KBL센터에서 재징위원회를 열고 최희암 감독에게 KBL 비방과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희암 감독은 3일 인천에서 열린 전주 KCC와 6강 플레이오프 4차전이 끝난 뒤 5차전 출전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제재금과 함께 재발 시 중징계의 경고도 받았다. 한편 KBL은 "지난 1일 전자랜드-전주 KCC 간 6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발생한 비인사적인 행위에 대해 서정훈과 도널드 리틀(이상 전자랜드)에게 100만원과 200만원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명 이태규 '황홀한 입맞춤'

한중투어 KEB인비테이셔널 12언더파 생애 첫 우승 감격

이태규(36·슈페리어)가 한국프로골프(KPGA) 개막전 한중투어 KEB인비테이셔널 우승을 차지했다. 이태규는 5일 중국 광저우 둥관 힐뷰 골프장(파72·7천1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8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2개로 막아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4라운드를 마친 이태규는 리처드 부어(호주), 허인회(22), 최인식(26·우리골프)을 1타 차로 제

치고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2002년 프로에 입문한 이태규는 지난해 10개 대회에 출전해 신한동해오픈 15위에 올랐을 뿐 '톱10' 한 번 없었던 알려지지 않은 선수다. 2008년 총상금이 2천716만원6천 540원으로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8천만원의 획득에 한 방에 지금까지 번 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쥐었다. 2008시즌 상금왕 배상문(23)은 8언더파 280타로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쳐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고 백전노장 최광수(49·동아제약)는 7언더파 281타, 단독 10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최경주 셀휴스턴 '컷 탈락'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과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셀휴스턴오픈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은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험볼트의 레드스톤 골프장 토너먼트 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를 15번홀까지 마친 가운데 5언더파로 공동 32위를 달렸다. 전날 2라운드를 시작도 하지 못해 이날 2라운드에 나선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각각 2오버파 146타, 8오버파 152타로 컷 탈락했다. 세계 랭킹 2위 필 미켈슨(미국)도 9오버파 153타, 재미교포 제임스 오(27도 16오버파 160타로 컷 통과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6일(월) ▲08/09 V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한국생명 : GS칼텍스)(13 : 00-KBS1) ▲K리그(인천 : 강원)(12 : 00-SBS스포츠)

부동산거래의 성공투자는 한국법률경매(주) 062) 225-1688 H.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정가, 최저가. Lists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cross different regions.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정가, 최저가, 비고. Lists real estate listings with additional notes.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정가, 최저가. Lists real estate listings with additional notes.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회춘' (Revival) advertisement for hair treatment.

남성희소식. Advertisement for men's health products, including '미제정품' (Unfinished Product).

개업·성업 안내. Advertisement for business and career services, including '남성희소식' and 'KAL'.